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5:12-1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한적한 곳으로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3월 24일(종려주일)	3월 31일(부활주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격주)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9) 사람을 낚는 어부

본문 : 눅5:1-11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인데, 많은 분들이 소명하면 왠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며,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만약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고삐가 붙잡혀 길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빠진 야생마는 조련사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부르심을 약간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첫번째 부르심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두번째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 첫번째 부르심 뒤에 다시 생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배위에 올라 설교를 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깊은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도중에 일어난 뜬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 속에 하루 종일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때 뒤에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표적을 보자마자 놀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놀라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놀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두번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또 한번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번째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서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고 주님의 양을 치는 제자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는 사명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받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그 안전한 물 속에서 건져 내라 하십니다.